



글로벌 통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다

-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열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4일(금)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기업 이익을 지키고, 자유무역협정(FT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대함으로써 수출 흑자전환,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록 경신 등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과제발굴 등 협조를 부탁한다”고 언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 회의 개요

- (일 시) '24.5.24일(금), 10:30~11:3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번(서울 중구)
-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국장급

☐ 상정 안건

- (대면) 「통상정책 로드맵」 추진계획(산업부)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30~10:35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35~10:50 ('1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0:50~11:25 ('35)	토 론	참석자
11:25~11:30 ('5)	마무리 발언, 폐회	통상교섭본부장

참 고2

참석자 명단

부처명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장성길 통상정책국장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정근용 통상협력총괄과장
기획재정부	민경설 대외경제국장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고용노동부	김은철 국제협력관
농림축산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형호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수산부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
보건복지부	조귀훈 통상개발담당과장
관세청	정구천 FTA 집행과장
법무부	신동환 국제법무지원과장